

# 돼지가 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강 화 순 회장  
한국양돈수의사회

수년간 끊이지 않고 많은 돼지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과거 돈가가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돼지가 죽어도 고돈가 덕분에 지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높은 폐사율로는 더 이상 양돈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이제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돼지가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돼지 품종, 시설, 환경, 영양, 질병, 사양관리 등 많은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양돈 현장을 다니면서 돼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자주 접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돼지가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어 주면 돼지가 죽지 않는 환경이 될 것이므로, 돼지에게 가장 중요한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한다.

## 1. 온도 센서의 올바른 위치 설정

돼지는 성장단계별로 온도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적정 온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기구와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용이 우리의 부주의에 의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온도센서의 위치 설정이다. 돼지가 요구하는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돼지의 높이에서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돼지 근처에 온도 센서를 설치 시 돼지가 물어뜯거나 부서버리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온도 센서를 천청부위에 다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더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기 때문에 돼지 높이에서와 센서높이에서의 온도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보통 센서가 있는 천청부위와 돼지가 있는 바닥 부위와는 5℃ 정도의 온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돼지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이 요구된다.

개선 방안은 온도센서를 돼지가 생활하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지가 온도센서를 건드리지 못하게 돈사 칸막이 옆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파이프 내에 온도센서가 위치하게 하면 된다.

## 2. 올바른 단열 시공을 하자

단열은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돼지를 고온과 저온 스트레스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단열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겨울의 추위에 의한 피해와 여름철의 무더위로 인한 피해로 돼지를 제대로 생산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농장에서 단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고 제대로 된 단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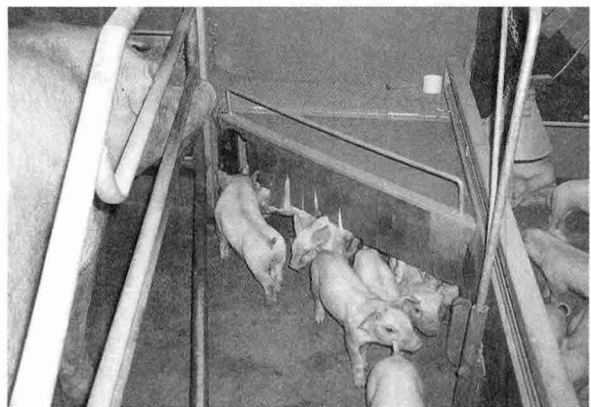
단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열은 4계절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자. 단열 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단열지수를 확인하고 제대로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농장에서는 단열을 하고는 있지만 단열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즉, 우레탄 시공을 하고 밖에 코팅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다.

이럴 경우 우레탄이 쉽게 부식하여 단열값인 R-Value치가 떨어져 더 이상 단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단열재인 우레탄을 시공 시에는 반드시 밖에 코팅을 하여 우레탄의 단열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

## 3. 포유자돈의 보온상자와 자돈의 보온박스를 설치하자

어린 돼지일수록 온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자돈은 태어나면서 환경이 급변하게 된다. 모돈의 배 속 온도인 38℃에 있다가 체외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빨리 양수를 닦아주어서 체온 손실을 줄여주어야 하며, 빨리 보온상자에 넣어서 온도변화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주어야 한다. 자돈은 체지방이 없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적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분만틀 내의 보온상자 설치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1> 분만틀 내에 설치된 자돈용 보온 상자 시설

과거 분만틀의 필수품이었던 보온상자는 지저분해지고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언젠

가부터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이제라도 없어진 보온상자를 하루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그림 2> 유럽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자돈 보온박스 시설

또한 자돈들도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자돈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보온박스를 설치하여 자돈을 보호하도록 하자. 자돈 보온박스를 설치하면 보온박스 내에는 셋바람이 없고 온도가 높아 자돈이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필자는 유럽의 양돈장을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돈사의 보온박스는 양돈선진국인 유럽에서는 보편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입기구 조절판을 설치하자

돈사의 입기구는 바깥의 찬 공기가 바로 떨어지지 않게 입기구 조절판(Baffle)을 설치하도록 하자.

밖의 찬 공기가 입기 되자마자 바로 떨어지게 되면 돼지는 저온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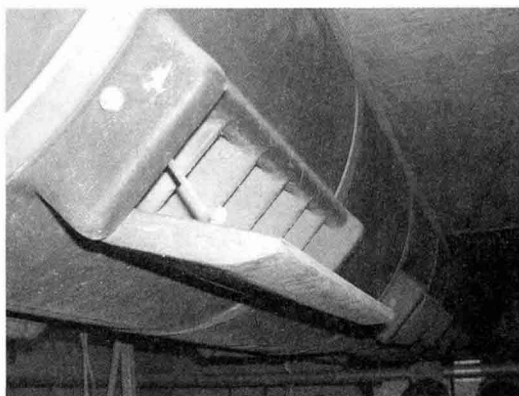
<그림 3>과 같이 입기구 밑에 공기 조절판을 설치하여 입기 된 공기가 돼지에게 바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도록 하자.

돼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온도, 습도, 공기, 물, 사료 등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 가을과 겨울에는 돼지를 죽이지 말고 돈 버는 양돈업이 되었으면 한다. 양돈



<그림 3> 입기구 공기 조절판

양돈농가 계도 슬로건 공모 입상작

위생관리 빈틈없이 방역활동 실패없이